

## “야당 돌풍 심상찮다” ... 민주, 광주·전남서 민심 구애

송영길 대표 “현안사업 예산반영 위해 당 차원에서 최선 다하겠다”  
“5·18 폄훼 한기호 철회” 최고위서 국민의힘 견제 발언 쏟아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1일 전통적 지지 기반인 광주·전남을 찾아 호남 민심 구애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광주시와 전남도에서 잇따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숙원사업 지원 약속을 하며 ‘뒤통수 지지’에 나섰다. 최근 호남에서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견제성 발언도 쏟아졌다. **〈관련기사 3면〉**  
민주당은 이날 오전 광주시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연 데 이어 광주시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각종 지역 현안사업 지원을 약속하며 표심을 공략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김용민·강병원·백혜련·김영배 최고위원, 박완주 정책위의장, 서삼석 수석사무부총장, 맹성규 예결위 간사 등 민주당 지도부와 지역 국회의원, 이용섭 광주시장과 광주시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이날 협의회에서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내륙철도와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 건의를 비롯한 현안사업 5건, 국비사업 21건 4533억원의 예산 반영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송 대표는 “호남 발전에 대한 민심 발전의 토대”라며 “광주 최대 현안인 군 공항 이전 문제는 빨리 논의가 진행되도록 뒷받침하고, 달빛내륙철도 역시 청와대와 정부 측에 4차 철도계획에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민

주주의 성지인 광주가 민주주의 발전은 물론 인공지능 시대 첨단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주요 현안 사업에 정부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 당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이어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사건을 거론하며 “당정은 사고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성공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안 처리를 적극 챙기겠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이어 오후에는 전남도청으로 자리를 옮겨 전남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전남도와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김승남 도당위원장(고흥·보성·장흥·강진)을 비롯해 이기호·신정훈·서삼석·김원익·주철현·소병철·서동용 등 지역 국회의원 8명이 참석했다.  
전남도는 이날 ▲지방 재정분권 개선 ▲전남 국립 의과대학 설립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전남·경남 남해안 남중권 정책적 결정 ▲혁신공항 연내 착공 지원 ▲전남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주요 도정 현안 10건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정부·여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올해 들어서 우리 전남 발전의 한 획을 긋는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었다”며 “재정분권 개선, 의과대 신설



21일 오전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기 전 송영길 대표 등 참석자들이 환담하고 있다. 이날 최고위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등 주요 도정 현안과 주요 사업 국고 지원에서 당차원의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송 대표는 전남지역 현안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해상풍력발전 인허가특별법 제정, 혁신공항 조기 착공, 전남권 의대 설립 등 지역 현안 사업을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또한 내년 국고예산 편성 시 건의 사업이 최대한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광주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는 최근 호남에서 정당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견제성 발언이 쏟아지기도 했다. 국민

의힘의 ‘서진정책’에 대한 진정성 의혹부터 과거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 발언을 한 국민의힘 한기호 사무총장 인선 철회 등을 주장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광주시 자치경찰위 첫 출발부터 ‘파열음’

7월부터 시행 앞두고  
공정성 논란 일으킨 특정위원  
4차례 회의 중 3차례 불참  
사퇴·제명 촉구 성명 예고

다음달 시행을 앞둔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첫 출발부터 파열음을 내고 있다. 위원선발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을 일으켰던 특정위원이 개인사 등을 이유로 총 4차례 열린 회의에 3차례나 불참하면서, 위원회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치경찰제를 이끌어갈 광주시는 해당위원의 눈치보기에만 급급한 모습이고, 광주시민을 대표해 꾸려진 위원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위원 제명권한 등이 없다며 사실상 두 손을 놓고 있다. 결국 보다 못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해당 위

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제명을 위한 성명서 발표 등을 예고하고 나섰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7월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를 이끌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달 10일 광주시청에서 출범식과 현판식을 갖고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 출범식과 현판식에 이어 공식적으로 첫 회의가 열렸는데, 총 7명의 위원 중 6명이 참석했고, 교수 출신인 A위원이 발열 등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선출건과 위원회 임용권 한시적 위임의 건, 2021년 회의 운영계획 등 중요 안건들이 다뤄졌다.  
A위원은 이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상견례성 모임을 포함한 4차례 회의에 단 한 차례만 참석해 일부 위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부 위원은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참한 위원에 대한 견제도 높은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A위원은 21일 열린

회의에도 불참 사실을 미리 통보하지 않았다. 회의의 준비하는 광주시 자치경찰행정과에서 A위원에게 참석 여부를 묻는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자 “사정이 있어 못 간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위원은 A위원의 불참과 관련해 불성실한 위원 활동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광주시 자치경찰행정과 관계자는 “운영규정에는 회의에 불참한다고 해서 위원을 제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선발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A위원은 지금이라도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수출신인 A위원은 2명의 추천권이 있는 광주시의회가 공개모집을 통해 1차 선발한 4명 중 4위였으나, 결국 사유가 없는 1위(번호사)를 제치고 최종 선발돼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무안~김포 하늘길 다시 열린다

24일부터 주 13회 운항  
무안~제주 노선 주 6회로 늘려

코로나 19가 막았던 무안-김포 하늘길이 다시 열린다. 무안-제주 간 운항 노선도 늘어난다. 전남도는 21일 “지난 4월 무안국제공항이 제주 노선 운항을 재개한데 이어 오는 24일 김포노선이 2010년 이후 다시 열리고, 7월 1일부터는 제주노선이 추가 운항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는 소형 항공운송사업자(50인승 이하) ‘하이 에어’가 국토교통부로부터 21일 신규취항 승인을 받은데 따른 것이다. ‘하이 에어’는 24일 오전 9시 30분 무안국제공항에서 취항식을 갖고, 무안-김포 노선에 주 13회, 7월 1일 이후 무안-제주 노선에 주 6회 운항할 계획이다.  
‘하이 에어’는 국내 유일 소형 항공운송사업자다. 2019년 울산-김포 노선을 시작으로 사천-김

포-제주 노선, 지난해 여수-김포 노선을 취항, 지금까지 15만여 승객이 안전하게 이용했다.  
이번 소형항공사 유치로 항공사 다변화로 공항 활성화와 이용객 선택의 폭 확대에 항공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게 됐다. 특히 혁신공항과 울릉공항 등 소형공항 건설 후, 폭발적 관광객 수요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형항공은 활주로 길이 1200m로 50인승 이하 소형항공기만 이착륙이 가능한 공항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승미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7개 코스 시범운영 후 7월 초부터 모든 코스 정상운영 예정  
2021. 6. 14. ~ 6. 27. 시범운영  
2021. 6. 14. ~ 8. 31.

**매일매일 골라 즐기는 남도여행**

온라인 구매 검색창에 남도한바퀴 검색  
http://citytour.jeonnam.go.kr  
오프라인 구매 유스퀘어(광주종합버스터미널)  
※ 잔여 좌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현장접수 가능  
예약 및 문의 062) 360-8502  
탑승 장소 유스퀘어(광주종합버스터미널) 32번출(남도한바퀴 출), 광주송정역(택시승강장)  
※ 일부 상품에 경우 나주역(나주종합스포츠파크), 나주혁신도시(한글농촌경관연구원 버스정류장)에서 탑승  
유의 사항 • 예약 확인증, 예약일자 제시 후 탑승  
• 식사, 입장료, 기타 비용 개별 부담  
• 날씨, 도로상황 등에 따라 시간 및 코스 변경 가능(대체 코스 운영)  
• 임시 휴관 및 일시 폐쇄된 관광지는 코스 변경 가능  
• 차량 보험만 포함(여행자 보험 불포함)  
코로나19예방 •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체온 측정 협조(미준수 시 탑승 불가)  
• 유증상자 탑승 불가  
• 좌석 간 거리두기 실천(한번씩 띄워주기)  
• 차량 내 음식물 섭취 금지, 대하 자제

코스명	출발	도착	비고
2021.6.14~6.27 시범운영	9:30 유스퀘어	17:20 유스퀘어	신과 바다를 품은 목포 오션뷰 여행
12,900원	9:00 유스퀘어	18:50 유스퀘어	푸릇푸릇 자연이 내뿜는 화순·보성·순천 초록여행
12,900원	9:30 유스퀘어	18:10 유스퀘어	임상에서 바라본다! 섬으로 무안·신안·영광 바다낚시 여행
9,900원	9:00 유스퀘어	19:00 유스퀘어	붉은 배수, 푸른 습지 영광·고창 여름 나들이
9,900원	9:30 유스퀘어	18:30 유스퀘어	함평·무안·나주 생태여행
18,900원	8:50 유스퀘어	19:30 유스퀘어	바다있는 길 순천-여수·고흥 힐링로드
12,900원	8:30 유스퀘어	19:40 유스퀘어	어울부들 해남·진도·함도여행
9,900원	9:00 유스퀘어	19:10 유스퀘어	파란하늘아래 장성·담양 마음산책
12,900원	8:50 유스퀘어	19:15 유스퀘어	섬진강바다라 곡성·남원 포근한여행
12,900원	9:10 유스퀘어	19:55 유스퀘어	바람이 불려주는 이야기 장흥·강진·광주 시간여행
12,900원	9:00 유스퀘어	20:05 유스퀘어	눈과 입을 사로잡는 나주·해남 안도 맛있는 여행

KTX+남도한바퀴 코스

코스명	출발	도착	비고
2021.6.14~6.27 시범운영	8:30 유스퀘어	19:40 유스퀘어	함평의 고귀함을 품은 진도 힐링여행
12,900원	9:00 유스퀘어	19:35 유스퀘어	남쪽의 바다 품은 여수·진도 예술 여행
12,900원	9:30 유스퀘어	18:30 유스퀘어	신라의 아름다움 산안 보물섬여행
12,900원	9:30 유스퀘어	19:35 유스퀘어	함평의 아름다움 구례 추억여행

여객 코스

코스명	출발	도착	비고
12,900원	13:20 유스퀘어	22:25 유스퀘어	날과 밤이 있는 광양·담양 여행
12,900원	9:10 유스퀘어	19:05 유스퀘어	삼포의 아름다움 보성·순천·나주 특색여행

무양에 코스

코스명	출발	도착	비고
12,900원	9:10 유스퀘어	19:05 유스퀘어	삼포의 아름다움 보성·순천·나주 특색여행

진통 5일 시장 코스

코스명	출발	도착	비고
12,900원	8:20 유스퀘어	19:40 유스퀘어	삼포의 아름다움 고흥 연흥도 가는 길
12,900원	8:20 유스퀘어	19:35 유스퀘어	삼포의 아름다움 함평·강진·남원여행
12,900원	8:40 유스퀘어	18:30 유스퀘어	삼포의 아름다움 화순·보성·담양 여행
12,900원	8:30 유스퀘어	18:15 유스퀘어	안동에서 온이야기 강진·원도 유유자적 여행
12,900원	8:20 유스퀘어	18:55 유스퀘어	푸릇푸릇 자연이 품은 장흥·영광·유유자적 여행

KTX 연계 순환형버스

코스명	출발	도착	비고
12,900원	11:00 유스퀘어	19:55 유스퀘어	나주·함평·진도 여행
12,900원	19:10 유스퀘어	16:55 유스퀘어	나주·영광·담양 여행
12,900원	19:00 유스퀘어	16:40 유스퀘어	나주·영광·담양 여행